

깨어 있으라

요엘 2:28-32, 마가복음 13:28-37

최정웅 목사님

오늘은 참사랑교회가 청지기 주일로 지키는 날이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대강절(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성탄절 전 주간이다. 주님의 강림을 고대한다는 의미에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른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고 네 번이나 말씀했다. 청지기로 임명받은 분들은 특히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배경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잘 보고 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찬송하는 것이다. 갓난아이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똥오줌도 못 가리다니, 뛰어 다니지도 못하다니, 부끄럽다. 이러려고 내가 아이로 태어났다.’ (웃음)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당연히 아이는 엄마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아이는 부모님의 돌봄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세상에 가면 자꾸 틀린 소리를 하지 않나.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최고다.’ 그런 잘못된 각인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혼란에 빠져 버리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되겠다. 고백하라.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갈라디아서 2:20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속에서 누가 사는가? 나는 없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산다고 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된다. 다른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 그때부터 잘못되게 된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3절에, 주님이 내게 모든 일을 미리 말해주셨다고 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신다고 했다. 미리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구체적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말씀과 기도로 기록한 삶을 살게 된다고 했다(딤후 4:5).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진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것이 청지기의 기본인 것이다. 청지기의 기본은, 역대상 29:10-14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이 허락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 것이다. 두 가지를 오늘 묵상하겠다.

1.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깨어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은 종말 장이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 첫 번째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망했던 그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열두 가지 이유가 지금도 상존(尙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4-5의 문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지금 있다. 그 원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창세기 6:4-5에 나오는 그 네 피람 시대가 지금도 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성공 위주의 사상이 지금도 똑같다. 물론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나오는 무속, 점술, 우상 사상이 지금도 똑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30에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11:4에는 광명한 천사 모양으로 지금도

세상을 어지럽히고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지금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것이 진실을 이겨 버린다.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이고 이간질하는 자다. 이것을 계속 하면서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인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인류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2) 두 번째로,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이것이 더 심해지고 있다. 베드로전서 5:8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요한계시록 12:1-12에 보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지금 내려갔다’고 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하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다. 원수는 에베소서 4:27에서, 지금도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고 모함하려고 벽을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깨어 있으라.

(3)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이제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구에 갔다 왔다. 내가 50년 전에 거기에서 4년 정도를 살았다. 신학을 거기에서 시작했었다. 강산이 다섯 번 변했으니, 엄청나게 넓어진 것이다. 그때는 택시를 타면 어디를 가도 기본요금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렵도 없다.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었다. 렌트들은 자기에게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금방이다. 그래서 이목사는 빨리 장가를 가야 한다. 금방 40, 50, 60 된다. 40, 50대는 인생의 절정인데, 아직 짝도 못 만났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차마만 둘렀으면 빨리 만나서 가야 한다. (웃음)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다. 살아보면 그렇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에베소서 6:10-20에 보면, 우리를 틈타고 계속 덤벼드는 원수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싸워야 하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신이 희미하면 다 빼앗기고 말기 때문이다. 다 얻어놓고 다시 빼앗기고, 다 해 놓고 이루지 못하게 된다. 요즘 옆의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이, 자신과 장로교가 주장하는 것이 다 같은데, 다른 게 딱 한 가지다. 장로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믿는 사람도 다시 타락해서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말은 때어야지. (웃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칼뱅의 주장은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다.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어야 한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5:14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나오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어가는 자들 중에서 나와라. 거기 있으면 같이 죽는다.’ 기회가 많지 않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때와 비슷하지 않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6.25 전쟁이 있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전쟁 중에 너무 어려우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다. 동네 사투리가 ‘가을’을 ‘가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이번 가을에 혹시 주님 오시려나’ 하면서 사모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밥술이나 먹게 되고, 양변기 화장실 쓰게 되고, 오만 것 다 먹고 사니까, 이제는 안 오시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대심판관에게 ‘내가 곧 가겠다’고 편지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대심판관, 교황이, “뭘 벌써 오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잘 돌보고 있으니 천천히 오십시오.” 세상이 그러고 있다. 아방궁에 앉아 있으면 세상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할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다른 사본에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다. 자, 복음 가진 우리들이,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안심할 메시지가 하나

있다. 시편 121편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4절에, 그 하나님이 줄 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고 했다.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했다. 복음을,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 하면서, 이 험난한 시대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한다. 깨어있을 이유가 분명하다.

① ‘천명’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타고난 수명이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말은, 하늘의 명령을 뜻한다.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 미션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무슨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천명을 생각하시기 바란다.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이 악한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② ‘소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신분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부르신 것이다. 나는 교역자를 쓸 때 그동안 그렇게 했다. 제일 처음 이력서 가지고 온 사람을 그냥 썼다. ‘나도 부름 받았지만 너도 소명을 받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생명을 다해서 여기 와서 같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해보자’ 하고 채용한 것이다. 소명이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소명을 받은 놈도 있더라. 그것은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청지기로 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어디에 불렀는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된다.

③ ‘사명’이라는 말은, ‘하여금, 혹은 사신(使事)’자와 ‘명령한다’는 ‘命(명)’자를 합한 말이다. 사자로서 받은 명령을 사명이라고 한다. 부가된 임무를 말한다. 내게 무슨 임무가 주어졌는가. 그것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다. 내 생명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받고 모든 생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천명, 소명, 사명 받은 청지기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2.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 크게 생각할 것은, 그러면 깨어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겠는가? 군대에 가면 반드시 보초가 있다. 불침번이 있다. 돌아가면서 밤을 샌다. 그렇게 해서 지킨다. 전우를 지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최전방에서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 군인이 넘어와서 목을 따간다. 지난번에 북한 병사가 투항을 하려고 왔는데 아무도 깨어있지 않아서 초소까지 와서 문을 두드렸다. 적군이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보초는 깨어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부대가 다 멸망당한다. 군대에는 통신병도 있는데, 지휘자 옆에 항상 붙어있다. 전화기를 가지고 따라다닌다. 그게 끊기면 큰일이 난다. 연락망이 끊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4시 계속 해야 한다.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전도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1) 위기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24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한다. 정시기도를 넘어서서, 수시로 기도하라.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마라. 이 말 저 말 들으면 헛갈린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 그러면 틀림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부분이다. 가지와 잎사귀 모습을 보면 열매 맺을 때를 대략 구별할 수 있다고 했다. 말씀 속에서 이미 주신 징조와 흐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가면, 지금의 시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때와 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24시를 하라는 말이다. 이사야 62장에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종야에 잠잠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 에베소서 6:18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17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정시기도를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기도로 연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24시의 시스템이 생긴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24시 주님과 계속 통화를 해라.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해답을 계속 얻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 중에도 전쟁터의 막사에서 흰 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했다. 시간만 나면 군복을 입고 근처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집무실 옆에 기도실을 만

들고 계속 기도했다. 지금도 미국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링컨이다. 노예를 해방하고 남북 전쟁을 종식시켰다. 대단한 대통령 아닌가. 정적을 장관으로 세운 첫 번째 모델이었다.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이 아니다.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산다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며 기도하다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2)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때 오는 것이 바로 25시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내 능력이 아니다. 내 시간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져서 사는 것이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램네프들이 흑시 회사 갔는데 너무 힘든가? 기도하라. 화장실에 가서, 옥상에 가서, 조금 일찍 가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장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체력도 주시고, 영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러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명, 사명, 천명을 주셨다. 그것을 감당하라. 어느 날 그것이 여러분의 회사가 될 것이다. 24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것을 말씀했다. 마가복음 13:11에, “위기를 만났을 때도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때 성령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내 입에 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스가랴 4:6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도록, 이 25시의 응답을 모두 받게 되기를 바란다.

(3) 24, 25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의 시간표다. 24-27절에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주시고 있다. 이 영원의 시간표는 언제 오는가? 10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온다고 했다. 27절에, 주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 축복의 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24, 25와 함께 영원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2016년이 다 갔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지나면 2017년이 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17년은 교회 창립 50주년이 된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다. 램네프대회는 20주년을 맞게 된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다.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에 받아야 할 응답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시기 바란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연말연시, 송구영신이 되시기 바란다. 망년회다 뭐다 해서 흐트러진 모습이 되지 마라. 우리 민족이 그럴 때가 아니다. 시대가 그럴 때가 아니다. 공예배, 개인예배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내가 해야 할 헌신의 제목과 방향을 발견해 보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방향을 주시고, 정확한 응답으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깨어 있으라.

“하나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원수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기 때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서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틈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24시 기도하게 하시며, 25시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영원한 시간표를 보는 지혜와 영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모든 문제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그 얼굴, 그 눈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